원유가 현실화 조기 해결 촉구

- 청년분과위원회 낙농진흥회, 농림수산식품부, 유가공협회 방문(3.26) -

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이명환)은 지난 3월 26일(수) 낙농진흥회, 농림수산식품부, 유가공협회를 잇달아 방문하여, 사료값 앙등 등 제반물가 상승으로 목장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원유가 현실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낙농진흥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위원회 대표단은 생산자측 이사의 소집요구에 따라 익일 진흥회 임시이사회가 개최되는 만큼 원유가 현실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예년과 같이 이사회 파행에 따른 항의방문 등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방문에서는 사료값 폭등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시 농가 도산은 불가피 하다고 전달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기해 해결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농가 사료특별구매자금 지원대책과 관련 무이자 융자지원, 상환기간 연장 등을 건의하고 이와 병행한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근본적인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도 건의하였다.

유가공협회 방문에서는 유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지만 고통분담차원에서 원유가 현실화가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우유 덤판매(끼워팔기) 중단을 위해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낙농진흥회 서극수 전무는 익일 원유가격 조정을 위한 임시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업체와 생산자 중재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이성주 사무관은 낙농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있다면서 원유가 현실화 문제는 소비여건 등을 고려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유가공협회 박상도 부장은 우유팩 등 원재료가 인상, 소비부진 등 유업계의 고충을 설명하면서, 낙농유업 협력을 통해 논의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 대표단으로 이명환 위원장, 곽성훈 부위원장, 황인석 부위원장, 이경훈 총무, 김웅식 강원도위원장, 황형석 충남도위원장, 김동현 경북도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